

창업교육과 개인적 환경요인 및 개인적 특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경희, 성창수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dividual Environmental Factor and Individual Trait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Kyung-Hee Jung, Chang-Soo Sung
Dept.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Dongg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과 대학생들의 개인적 환경요인 및 개인적 특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측정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과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성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진로준비행동,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의 중요성과 함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한 대학차원 창업교육의 인식전환 및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주제어 : 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성별, 경력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dividual environmental factor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total of 346 university student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8.0. To test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role model, 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hile gender were not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s study reconfirms the importance and change of recognition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enhancing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ole model and 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Entrepreneurship, Role Model, 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Gend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Received 25 April 2017, Revised 28 May 2017
Accepted 20 June 2017, Published 28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Chang-Soo Sung(Dongguk University)
Email: redsun44@dongguk.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 취업률을 공시하고,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취업률은 학생, 학부모 및 대학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이에 대학은 졸업 후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진로결정 및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및 올바른 정보 선택과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2].

이러한 중요성으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같은 선택적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성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4,5]. 최근 대학에서도 진로결정에 있어 취업과 함께 창업이 또 하나의 진로선택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지하여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창업교육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적응성, 경력의도 등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6,7]. 또한 대다수 기존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진로프로그램 등의 진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연구에 국한되어있다[8,9]. 이에 대학 창업교육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선행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준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창업교육, 대학생들의 개인적 환경요인(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및 개인적 특성(성별,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 창업교육의 다양한 기대 효과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10].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면 <Table 1> 과 같다.

<Table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ory

Researcher	Content
Hackett & Betz(1981)	Based on the self-efficacy theory of Bandura (1997), the concep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s applied by applying the self-efficacy related to career choice and adaptation to career development field[11].
Taylor & Betz(198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SES) was developed for 50 questions related to career decision making[12].
Bandura (1986)	Developing and embodying the theory of social cognitive career by applying self-efficacy as a main variable in career development model[13].
Betz, Klein & Taylor (1996)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SES-SF) was reduced to 25 items in 50 career self-efficacy scale (CDMSSES). It consists of self-evaluation, information gathering, goal setting, career planning and problem solving[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관련 의사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 경력선택, 진로적응력, 진로성숙, 진로결정수준 등에 의미있는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15, 16]. 또한 진로와 관련된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 및 다른 요인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17,18].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및 취업 등의 예측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집단상담, 진로프로그램, 멘토링 기능, 자기주도성 등이 연구되고 있다[8,9,19].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선행요인으로 창업교육, 개인적 환경요인(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개인적 특성(성별,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2 창업교육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창업교육이란 시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개발, 활용하는 기업가정신 및 스킬 함양 교육을 의미한다[20]. 일반적으로 대학의 창업교육은 청년창업가 발굴과 함께 다양한

전공지식을 보유한 학생들간의 팀빌딩을 통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 마인드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다[7]. Liñan, Rodríguez & Rueda(2011)는 창업교육이 사람들의 기업가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창업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잠재적 창업가 육성의 획기적인 방안임을 제시하였다[21]. 대학 창업교육의 구성은 주로 성공창업가 특강, 현장활동, 팀빌딩 및 멘토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창업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이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22].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진취적인 기업가적 마인드 및 적극적인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특히,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24,25].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창업교육에 의해 기업가적 경력의도로 확산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7].

2.3 개인적 환경요인(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역할모델은 진로결정과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으로 인식된다. 또한 진로결정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변수로 규명되고 있다[26]. 진로결정에 관한 선행이론들은 역할모델이 경력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Table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Table 2> Career Theory

Researcher/Theory	Content
Dyer(1994) Model of Entrepreneurial Careers	Entrepreneurial career choice is influenced by individual factors such as entrepreneurial attitudes, role models (social factors), and the availability of resource networks (economic factors)[32].
Lent, Brown & Hackett(1994)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is influenced by individual diversity and environmental factors[33].

Gibson(2003)의 연구에서는 역할모델이 특정 진로에 영향을 준다고 검증된 바 있으며[27], 이는 개인의 역할모델을 통해 자신의 미래 성취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선행연구의 역할모델 개념을 살

펴보면 Gibson(2004)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역할모델은 부모, 선생님, 멘토와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29], Nauta & Kokaly(2001)는 역할모델을 어느 일에서든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본보기가 되고 학업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30]. Fried & MacCleave(2009)는 역할모델을 진로결정에 있어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31].

본 연구에서는 역할모델을 가족과 지인의 역할모델로 구분하여, 가까운 가족과 부모의 창업경험을 별도의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가족의 창업경험은 개인적 환경요인으로써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역할모델의 과정을 통해 자녀의 기업가적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34,35].

2.4 개인적 특성(성별,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분야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며, 여성이 진로결정에 있어 남성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도 나타나며 진로결정의 자신감에 중요한 성별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36]. Marlino & Wilson(2003)의 연구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자신감에 있어 성별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7].

진로준비행동은 스스로 결정한 진로목표의 달성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38,39]. 다시말해,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에 대한 정보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과 자신이 목표한 진로 및 직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40].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인 영향이 입증되었다[7,41,42]. 이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진로와 관련된 태도나 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5,44].

3. 연구 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창업교육, 대학생의 개인적 환경요인(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및 개인적 특성(성별,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독립변수로 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성별,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가설 1. 창업교육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개인적 환경요인인 역할모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개인적 환경요인인 가족창업경험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개인적 특성인 성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개인적 특성인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성별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리커트 5점 척도의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7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 & Betz(1983)에 의해 개발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를 토대로 Betz, Klein & Taylor(1996)에 의해 수정된 단축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CDSE-SF) 25문항을 기초로 수정하여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45]. 측정항목의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하(Cronbach) 알파(α)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Cronbach's α 0.847이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0.773이었다.

3.3 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 소재 D대학의 재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62부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불성실 설문지를 제외한 총 34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설설정에서 도출된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의 측정과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측정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0을 활용하였다. 먼저, 설문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 검증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 가족창업경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에 대한 빈도(%) 분석결과, 성별로는 남자 213명(61.6%), 여자 133명(38.4%)이며, 학년은 1학년 83명(24.0%), 2학년 67명(19.4%), 3학년 77명(22.3%), 4학년 119명(34.4%)이었다. 가족창업경험은 있음 143명(41.3%), 없음 203명(58.7%)이었다. 역할모델은 있음 184명(53.2%), 없음 162명(46.8%)이었다. 창업교육은 있음 208명(60.1%), 없음 138명(39.9%)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alysis

	category	Numner	Percent(%)
gender	Male	213	61.6
	Female	133	38.4
grade	Freshman	83	24.0
	Sophomore	67	19.4
	Junior	77	22.3
	Senior	119	34.4
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Yes	143	41.3
	No	203	58.7
Role Model	Yes	184	53.2
	No	162	46.8
Entrepreneurship Education	Yes	208	60.1
	No	138	39.9
Total		346	100

4.2 상관관계분석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의 기술통계와 변수간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Table 4>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1.Entrepreneurship Education	1					
2.Role Model	.095	1				
3.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057	.163**	1			
4.Gender	.027	.086	.118*	1		
5.Career Preparation Behavior	.014	.329**	.134*	.248**	1	
6.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09*	.303**	.145**	.086	.477**	1

*P<.05, **P<.01, ***P<.001

4.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 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 통계량은 28.673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는 0.000이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회귀계수값은 창업교육 0.107, 역할모델 0.169, 가족창업경험 0.122 진로준비행동 0.405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 가설 3과 가설5는 채택되었다. 진로준비행동,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창업교육 순으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5,15,43]. 역할모델 또한 특정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창업경험은 자녀의 기업가적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27,29,31,34,35] 이와 함께 역할모델이 가족창업경험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34]. 또한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경력의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7,24,25]. 성별은 -0.045 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은 자신감에 있어 진로결정의 성별차이가 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36,37].

<Table 5> Regression analysis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2.098	.141		14.917***
Entrepreneurship Education	.157	.065	.107	2.415*
Role Model	.243	.068	.169	3.567***
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179	.067	.122	2.674**
Gender	-.066	.067	-.045	-.98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72	.044	.405	8.483***

R2 =0.279 Adj R2= 0.269 F=28.673 Sig F=0.000

Dependent variable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P<.05, **P<.01, ***P<.001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교육과 개인적 환경요인인 역할모델 및 가족 창업경험, 개인적 특성인 성별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여 학생들의 진로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2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창업교육에 의해 확산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7]. 이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도의 향상 뿐 아니라 미래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창업교육의 인식개선 즉, 청년창업가 양성에만 필요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대학차원의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역할모델 또한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특정 진로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미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27,28],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중요하며[46],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신의 미래직업에 대한 선호도와 결정을 촉진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30,47]. 따라서 대학생들의 역할모델의 존재는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가족창업경험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가족 역할모델이 지인 역할모델에 비해 낮게 나온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34] 이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가족의 창업경험보다 지인역할모델이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가족창업경험은 성공과 실패에 따른 가족들의 직접적인 공유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지인역할모델에 비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로 확인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5,44]. 이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은 스스로 결정한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개인이 행하는 태도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성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며,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24,48],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 여성은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경력선택 성향과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인식으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졌다면, 최근 여성의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사회지향적인 성향으로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은 주로 창업의도 및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수로 적용되었으나, 본 연구결과, 대학 창업교육의 효과가 비단 창업에 필요한 실무역량만이 아닌 학생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보다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 역할모델 및 가족창업경험과 같이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도 창업교육을 통한 간접경험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인과관계 모형에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두 변수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결과와 다르게[41], 본 연구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성별의 영향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최근 대학생 및 젊은 여성들의 인식 및 성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으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의 중요성 및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표본의 확대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K. S. Shin, I. J. Cho, "The Effects of Job-seeking Skill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in College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9, No.3, pp.143-160, 2013.
- [2] S. H. Kim, M. J. Kim,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4, pp.407-418, 2016.
- [3] H. O. Kim, Y. J. Koo, E. A. Park, "The Influence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Perceived Stress, Stress Coping, Perfectionism, and Self 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2, pp.257-266, 2015.
- [4] J. C. Lee, "Theoretical Study and Comparison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3, No.1, pp.49-66, 2013.
- [5] Y. S. Noh, C. Y. Jy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daptability, Proactive Personali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8, No.2, pp.55-81, 2016.
- [6] A. Barnir, W. E. Watson, H. M. Hutchins,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41, No.2, pp. 270-297, 2011.
- [7] K. H. Jung, C. S. Sung,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1, No.4, pp.49-57, 2016.
- [8] E. K. Kwon,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Competenc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1, No.10, pp. 181-187, 2013.
- [9] S. H. Kim, M. J. Kim,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4, pp.407-418, 2016.
- [10]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 [11] G. Hackett, N.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No.3, pp.326-339, 1981.
- [12]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 [13]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14]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t Form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No.1, pp.47-57, 1996.
- [15] S. A. Bae, S. Y. Sung,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9, pp.277-299, 2015.
- [16] K. M. Lee, C. H. Bum,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golf majors", *The Journal of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8, No.3, pp.265-273, 2017.
- [17] M. O. Kim, Y.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11, pp.69-90, 2012.
- [18] S. H. Lee, E. Y. Son, "The Relation Between Optimism of College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Scale and Career Adaptability: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4, pp. 2525-2544, 2013.
- [19] M. S. Kang, E. R. Bang, "The Analysis on the Causal Model between Self-directedness,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 and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20, No.44, pp.443-467, 2014.
- [20] S. W. Kim, E. J. Shin, H. J. Kim, S. M. Hong, K. B. Park, S. R. Chum, H. J. Ko, J. S. Park, Y. K. Shin, "Innovative Strategie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University in Science and Engineering",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olicy Institute*, pp.1-272, 2014.
- [21] F. Liñan, J. C. Rodríguez-Cohard, J. M. Rueda-Cantuch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Levels, A Role for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Management Journal*, Vol.7, No.2, pp.195-218, 2011.
- [22] H. Matlay, "Researching Entrepreneurship and Education: What is Entrepreneurship and Does it Matter?", *Education Training*, Vol.47, No.8, pp. 665-676, 2005.

- [23] K. O. Park,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dergraduate",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33, No.5, pp.233-247, 2014.
- [24] F. Wilson, J. Kickul, D. Martin,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1, No.3, pp.387-406, 2007.
- [25] K. H. Jung, C. S. Sung,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ntrepreneurship Career Intention :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1, No.4, pp.49-57, 2016.
- [26] H. Van Auken, F. L. Fry, P. Stephens, "The Influence of Role Model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11, No.2, pp.157-167, 2006.
- [27] D. E. Gibson, "Develop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 Role Model Construals in Early, Middle, and Late Career Stage", *Organization Science*, Vol.14, No.5, pp.591-610, 2003.
- [28] A. Barnir, W. E. Watson, H. M. Hutchins,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41, No.2, pp.270-297, 2011.
- [29] D. E. Gibson, "Role Models in Career Development :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65, No.1, pp.134-156, 2004.
- [30] M. M. Nauta, M. L. Kokal, "Assessing Role Model Influences on Students' Academic and Vocational Decis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9, No.1, pp.81-99, 2001.
- [31] T. Fried, A. MacCleave, "Influence of Role Models and Mentors on Female Graduate Students' Choice of Science as a Career", *The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5, No.4, pp.482-496, 2009.
- [32] W. G. Dyer, "Toward a Theory of Entrepreneurial Caree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9, No.2 pp.7-22, 1994.
- [33] R. W. Lent, S. D. Brown,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No.1, pp.79-122, 1994.
- [34] J. H. Jin, B. J. Park, "The Impact of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36, No.4, pp.101-123, 2014.
- [35] B. S. Yoon,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Management*, Vol.17, No.2, pp.89-110, 2014.
- [36] D. D. Nevill, D. I. Schleckler,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to Willingness to Engage in Traditional/nontraditional, Career Activiti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12, No.1, pp.91-98, 1988.
- [37] D. L. Marlino, F. Wilson, "Teen girls on business: Are they being empowered? Boston and Chicago", *Simmons School of Management*, 2003.
- [38] T. S. Kim, K. H.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3, No.4, pp.123-14, 2012.
- [39] I. H. Jung, B. C.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3, No.3, pp.13-19, 2012.
- [40] IJ. C. Heo,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on empowerment and career preparaton activ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7, No, 6, pp.219-228, 2016.
- [41] C. P. Neck, J. D. Houghton,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21, No.4, pp.270-295, 2006.

- [42] J. K. Lee, D. I. Kim,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5, No.4, pp.93-1016, 2004.
- [43] C. Brown, E. E. Darden, M. L. Shelton, M. C. Dipoto, “Career Exploration and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Are There Urban/suburban Differenc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7, No.3, pp.227-237, 1999.
- [44] G. V. Gushue, K. R. Scanlan, K. M. Pantzer, C. P. Clarke,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33, No.1, pp.19-28, 2006.
- [45] J. Y. Shin, S. S. Park, J. E. Hyung,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5, No.1, pp.19-35, 2012.
- [46] R. W. Lent, S. D. Brown,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No.1, pp.79-122, 1994.
- [47] M. Radu, R. Redien-Collot,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Entrepreneurs in the French Press Desirable and Feasible Model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26, No.3, pp.259-298, 2008.
- [48] K. H. Sun, “The Influences of College Students’ Sex, Grade, and Career Consciousness on Career Development Preparation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Vol.9, No.3, pp.83-104, 2010.

정 경 희(Jung, Kyung Hee)



- 2001년 2월 : 숙명여대 독어독문학과(문학사)
- 2004년 2월 : 동국대 경영학과 (MBA)
- 2015년 3월 ~ 현재 : 동국대 기술창업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창업교육, 창업정책
- E-Mail : heemiso@dongguk.edu

성 창 수(Sung, Chang Soo)



- 2011년 2월 : 중앙대 창업학과(창업학 박사)
- 2013년 12월 : 신문대 BT융합계약공학과 조교수
- 2015년 5월 ~ 현재 : 동국대 기술창업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술창업, 창업교육
- E-Mail : redsun44@dongguk.edu